

## 케이틀린 클라크, 할리우드 액션 논란 WNBA 최고 스타...인기만큼 과장된 행동에 비판



▲ 케이틀린 클라크, 사진=wnba.com

WNBA 인디애나 피버의 스타 케이틀린 클라크는 리그의 대표 얼굴로 주목받고 있지만, 그만큼 비판의 대상도 되고 있다. 최근 벌어진 경기 중 몸싸움 사건을 계기로 클라크는 과도한 '플롭(flopping·할리우드 액션)' 논란에 휘말리며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논란은 지난 18일 코네티컷 선과의 경기에서 시작했다. 3쿼터 도중 상대 선수 제이시 쉘튼에게 눈을 찔린 클라크는 즉각적으로 밀치며 반응했고, 이를 본 마리나 메이브리가 클라크를 몸으로 밀치며 넘어뜨리는 장면이 연출됐다.

처음엔 많은 팬들이 클라크가 강하게 맞서 싸운 것에 대해 지지를 보냈지만, 경기 영상이 다시 공유되며 여론은 빠르게 변했다. 일부 팬들과 해설가들은 클라크가 상대의 반칙을 유도하기 위해 과장된 연기를 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스포츠 라디오 진행자 댄 다키치는 "심판이 클라크를 보호할 의무는 없다. 클라크는 명백히 플롭했다"며 "메이브리는 동료를 보호한 것뿐이다. 테크니컬 파울은 받을 만했지만 퇴장은 과하다"고 말했다.

'바스볼 스포츠'의 브랜든 워커는 "클라크는 굉장한 선수지만 동시에 완벽한 플로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SNS에서는 클라크가 쉘튼의 반칙을 유도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조작했다는 팬들의 의견이 쏟아졌다.

한 팬은 "이게 진짜 GOAT(최고 선수) 맞나? 케이틀린 클라크는 WNBA의 플롭 여왕"이라며 냉소했고, 또 다른 팬은 "매번 분쟁을 유발해놓고는 숨고, 팬들에게 다른 선수들을 공격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SNS 이용자는 "리그 최고의 플로퍼다. 그 모든 억지 행동들"이라며 강하게 비난했고, "모든 건 클라크의 책임이다. 밀치는 장면 이후 퇴장당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논란은 NBA에서도 흔히 있는 일이지만, WNBA가 점차 대중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심판진이 이러한 논란에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심판이 클라크에게 공격자 파울을 선언하거나 아예 휘슬을 불지 않는 방식으로 문제를 조기에 제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신인 투수, MLB 125년 만의 신기록 밀워키 미시오로브스키 데뷔 후 11이닝 무안타 경기

밀워키 브루어스의 신인 투수 제이컵 미시오로브스키가 메이저리그 역사에 남을 기록을 세우며 화려한 데뷔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1일 미네소타 트윈스를 상대로 한 두 번째 선발 등판에서 미시오로브스키는 6이닝 동안 퍼펙트 피칭을 선보이며 시즌 2승째를 거뒀다. 그는 7회 초 첫 타자인 바이런 벅스턴에게 볼넷을 허용한 데 이어 맷 월너에게 우중간 홈런을 맞고 마운드를 내려왔지만, 이로써 데뷔 후 첫 11이닝 연속 무피안타 기록을 세웠다. 이는 1900년 현대 야구가 시작된 이후 선발투수 중 가장 긴 데뷔 연속 무피안타 기록이다.

신장 6피트 7인치의 장신 우완인 미시오로브스키는 8-2로 앞선 상황에서 박수갑체를 받으며 마운드를 내려왔고, 경기는 17-6으로 밀워키가 대승을 거뒀다. 그는 경기 후 "꿈꿔왔던 그대로의 모습이었다"며 "첫 등판보다는 훨씬 차분하게 던질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 12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를 상대로 한 데뷔전에서도 미시오로브스키는 5이닝 무피안타 투구를 펼쳤으나, 오른쪽 다리 경련으로 교체됐다. 하지만 두 경기만에 그는 메이저리그 현대사에서 유일하게 2승보다 피안타가 더 적은(1피안타) 투수로 기록됐다. 이 놀라운 성과는 데이터 분석 업체 업타스탯츠를 통



▲ 제이컵 미시오로브스키, 사진=mlb.com

해 확인됐다.

이날 경기에서 그는 총 6개의 삼진을 잡아냈으며, 최고 구속은 시속 102.1마일을 기록했다. 101마일 이상 빠른 공을 12차례 던졌고, 이는 추적 기록이 시작된 2008년 이후 한 경기에서 이 수치를 넘긴 선발투수가 한터 그린과 조던 힉스 단 두 명뿐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하지만 미시오로브스키는 빠른 볼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커브, 체인지업, 슬라이더를 섞어 타자들의 타이밍을 무너뜨렸으며, 특히 1회 초에는 첫 타자 윌리 카스트로를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균형을 완전히 장악했다. 이에 대해 팻 머피 밀워키 감독은 "첫 경기보다 훨씬 안정감 있었다"며 "제구와 경기 운영이 모두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다.

# Happy Hour

Dine in Only (3시부터)

|                                |                |
|--------------------------------|----------------|
| <b>해물파전</b>                    | <b>\$12.99</b> |
| <b>감자탕 전골 + 소주 1병</b><br>(콤보)  | <b>\$29.99</b> |
| <b>곰창 대창구이 + 소주 1병</b><br>(콤보) | <b>\$26.99</b> |
| <b>곰창 전골 + 소주 1병</b><br>(콤보)   | <b>\$29.99</b> |

All Day Promotion

파로 국밥, 설렁탕

\$9.99

\$6.99

(소주, 맥주, 막걸리)

**무봉리** MOOBONGRI **순대국**

**아테시아점**

T.562.403.4635

Ziggle Korean BBQ

물 안에 위치

12246 South St.  
Artesia, CA 90701